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그것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배층의 표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검은 머리·검은 눈썹과 강한 대조를 이루는 것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9ㄱ)은 ‘백옥’과 ‘진토’가 대조를 이루면서 [백]이 긍정적인 ‘빛’을 나타낸다. ‘백옥’의 경우 원래 [백]이 상급 품종의 표지로 기능하다가 관용적으로 ‘백옥 같은 살결’과 같이 쓰여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9ㄴ)에서는 ‘상전, 중, 빨래’가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하면서 ‘희다’가 상대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득]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환유에 의해 ‘발뒤축이 희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다. (9ㄷ)에서는 ‘희다’가 ‘흐리다’와 대조되어 [맑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백]은 ‘물’ 관련 어휘들과 공기하는 특징이 있다. ‘흰 이슬, 白露’와 같은 표현에서는 [백]이 [無色]이나 [淸]의 의미를 띤다. 보통 ‘바다’나 ‘물’이 ‘파랗다/푸르다’와 공기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의미는 다소 특이한 예이다. [흑] 계열에 비해 [백] 계열은 이러한 평가 의미를 가진 경우가 단독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고 [흑] 계열과의 대립 구조를 가진 속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다음은 [백]이 드물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예다.

(10) 흰 개 꼬리 굴뚝에 삼 년 두어도 흰 개 꼬리다⁴⁰⁾/흰 개 꼬리 삼 년 묻어 놓아도 황모(黃毛) 못 된다

여기에서는 문화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황모’는 족제비의 꼬리털로, 붓을 만드는 데 쓰는 상등품의 재료이다. 따라서 개 꼬리털은 그 품질을 따라가지 못한다. ‘구미속초(狗尾續貂)’라는 한자성어가 ‘담비의 꼬리를 개의 꼬리로 잇는 다’는 뜻으로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없는 것이 뒤따른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족제비·담비의 꼬리털은 개의 꼬리털과 상대되어 가치의 대립을 표상한다. 보통은 ‘희다’가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가질 것이나 여기서는 ‘황모’라는 사물이 가지는 긍정적인 평가 의미가 [황]이라는 색채에 투영되어 [백·황]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즉, [개 꼬리털-족제비 꼬리털]이라는 사물의 대립 관계가

40)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본성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표준)

환유적 의미 전이를 통해 [백-황] 대립으로 이동하였다고 하겠다. ‘흰 개 꼬리 굴뚝에 삼 년 두어도 흰 개 꼬리다’에서는 ‘황모’가 생략되어 이러한 대립 관계가 불분명해져 긍정적인 평가 의미인지 부정적인 평가 의미인지 해석이 어려워진다. 자칫하면 ‘굴뚝’이 함의하는 [흑]의 인상이 작용하여 [흑-백] 대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생긴다.

다음은 [백]이 물리적 색으로서만 쓰인 속담들이다.

- (11) ㄱ. 까마귀 대가리 회거든⁴¹⁾
 - ㄴ. 흰말 불알 같다⁴²⁾
 - ㄷ. 흰 머리에 이 박히듯⁴³⁾
 - ㄹ. 흰 머리에 이 잡듯⁴⁴⁾
 - ㅁ. 씻어 놓은 흰 죽사발 같다⁴⁵⁾/씻은 배추 줄기 같다/씻은 팔알[쌀알] 같다
 - ㅂ. 흰죽에 고춧가루⁴⁶⁾
 - ㅅ. 흰죽에 코⁴⁷⁾

이런 예들에서는 특별한 평가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11 ㄱ)은 ‘까마귀’가 쓰여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의 대립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단순한 색을 뜻할 뿐이다. (11 ㄴ)에서 ‘흰말’도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휘이나 여기서는 비속한 표현 ‘불알’과 함께 쓰여 같이 가치가 하락하였다. (11 ㄷ-ㄹ)은 ‘머리’와 ‘이’가 공간적으로 인접하다는 사실에서 만들어진 속담이

41) ①도무지 실현될 가망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기한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표준)
 42) 얼굴이 희고 기름기 있는 사람을 형용하는 말.
 43) 많은 사람이나 물건이 이 틈 저 틈에 끼어 있음.(표준)
 44) 이리저리 한없이 뒤지는 것.(표준)
 45) 생김새가 회멸썩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46) 격에 맞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47)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없다는 말.(표준)

다. ‘머리’와 ‘이’의 공간적 인접성에 둘 다 희다는 유사성이 동시에 작용하여 현재의 뜻이 형성되었다. (11口)에서는 ‘희다’가 부차적인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데, ‘씻은 배추 줄기 같다’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하는 명사가 지시하는 실제 대상의 속성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다.⁴⁸⁾ [깨끗함의 의미는 이러한 명사들과 ‘씻은’이 결합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11ㄴ-ㄷ)에서 ‘흰죽’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흰죽’은 본래 흰쌀로 쑨 죽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음식]을 표상하나 여기서는 그 색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1ㄴ)에서는 ‘고춧가루’가 대조되는 붉은색을, (11ㄷ)에서는 ‘코’가 유사한 흰색을 표상한다. 이와 같이 이러한 속담들은 공기하는 어휘들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어 나타나, (10)에서와 같은 [백]의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음은 색채 자체보다는 공기된 명사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이다.

- (12) 가. 흰 술은 얼굴을 붉게 하고 황금은 선비의 마음을 검게 한다⁴⁹⁾
- 나. 흰죽 먹다 사발 깬다⁵⁰⁾
- 다. 흰죽 사발 개 훑듯⁵¹⁾
- 르. 설달 그믐날 흰떡 맞듯⁵²⁾
- 미. 흰떡에도 고물이 든다
- 니. 흰떡에도 떡살 눌러 먹는다
- 시. 흰떡 집에 산병 맞추듯⁵³⁾

48) ‘흰죽 사발’인지 ‘흰 죽사발’인지가 다소 불명확하다. <표준>에서는 ‘흰 죽사발’로 보았으나 ‘흰죽 사발’이 나타나는 속담이 몇 개 있으며 ‘죽 먹은 설거지는 딸 시키고 비빔 그릇 설거지는 며느리 시킨다’의 속담에서 죽은 잔여물이 남지 않고 깨끗이 씻기는 물체의 표상이므로 더욱 맑은 ‘흰죽’이 이 속담의 의미에 부합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흰죽 사발’일 가능성이 높다.

49) 술 먹은 것은 얼굴에 나타나고 금전은 속마음을 음흉하게 한다.(표준)

50) 한 가지 일에 재미를 붙이다가 다른 일에 손해를 보는 경우를 이르는 말.(표준)

51) 깨끗이 먹어치움.(표준)

52) 설달 그믐날에 흰떡이 떡메에 맞는다는 뜻으로, 몹시 두들겨 맞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 . 백미에 누 섞이듯⁵⁴⁾
- ㅈ. 백미에는 누나 섞였지⁵⁵⁾
- ㅊ. 백사지에 무엇이 있나⁵⁶⁾
- ㅋ.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⁵⁷⁾ /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
- ㅌ. 동방삭이는 백지장도 높다고 하였단다⁵⁸⁾

여기서는 [백]의 의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단순히 후행 명사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색채어를 삭제하더라도 의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12ㅈ)에는 [상등품]이라는 의미가, (12ㅊ, ㅌ, ㅋ, ㅌ)에는 [無, 단순함]의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12ㅋ)은 ‘종잇장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 종잇장도 맞들면 낫다, 초지장도 맞들면 낫다’ 등으로 교체될 수 있듯이 [백]은 여기서 별 영향이 없다. (12ㄱ)에서는 ‘희다, 붉다, 황금, 검다’의 색채어들이 서로 대립 구조를 이루고 ‘희다/황금’의 긍정적인 의미와 ‘붉다/검다’의 부정적인 의미가 대립을 이루므로 ‘희다’가 들어갔으나 전체 의미에서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여기서도 [백]이 ‘술’과 결합하여 [無色]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에서는 의미의 전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속담에는 길흥담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백]은 주로 동물과 공기하는데, 길한 징조일 수도 있지만 불길한 징조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자연의 동물은 백색이 유표적인 색채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ㄱ. 아침에 흰말을 보면 그날 돈이 생긴다⁵⁹⁾

-
- 53) 틀림없고 영락없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 54) 많은 것 가운데 썩 드물어서 좀처럼 얻어 보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 55) 좋은 쌀인 백미에도 누가 섞여 있어 흠이 있는데 비하여 아무런 흠도 없음을 이르는 말(표준)
 - 56) 땅이 건실하지 못하여 물산(物産)이 되지 않는다는 말(표준)
 - 57)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표준)
 - 58) 동방삭이 불로장성한 것은 백지장도 높다고 할 만큼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

- ㄴ. 흰 산새가 나타나면 큰 풍년이 든다
- ㄷ. 흰 나비를 먼저 보면 상제가 된다

인도에서 흰 코끼리가 신성시되는 것이나, ‘左靑龍右白虎’와 같은 말에서 백호가 일반적인 호랑이에 비해 뛰어난 존재로 간주되는 것도 흰 동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희귀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하겠다.⁶⁰⁾ (13ㄱ)은 ‘흰말’과 ‘돈’의 두 어휘에서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매개로 관계가 형성되어 길흉담이 만들어졌다. 현실 사물의 속성이 아닌 공통된 2차 의미만이 인과 관계의 매개가 된 경우이다. 이때 선행 사건은 [귀한 것을 인지함]의 의미를 함의하고 후행 사건은 [재물을 얻음]을 함의하는데 두 사건이 [행운]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므로 유사성 내지는 인접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두 사건의 인접성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 인과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13ㄷ)은 [백]이 앞의 색채 연상에 대한 설문 결과와 같이 [상복]으로 인식되므로 나타난 속담으로 보인다. 보통 흰 나비를 영혼과 동일시하는 민간의 믿음과도 관련이 있다. 이 경우 완전한 인과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죽음이 먼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영혼이 변한 흰 나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과 관계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양상이 된다.

(14) ㄱ. 회고도 곱팡 슌 놈 / 회고 곱팡이 슬다⁶¹⁾

ㄴ. 회기가 까치 배 바닥 같다⁶²⁾ / 까치 배 바닥같이 흰소리한다 / 까치

59) 귀한 흰말을 아침에 보는 것은 재복(財福)이 있을 징조라는 뜻.(표준)

60) 사람의 경우에는 백색증이 병 또는 장애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동물은 생리적인 특징과는 관계 없이 귀한 존재로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가진다.

61) 말이나 행동이 몹시 희뻘고 실속이 없다.(표준) ‘회고도 곱팡이 슌 놈’의 경우에는 양보의 ‘도가’ 결합되어 있어 ‘외모는 버젓하게 보이나 내용은 빈약한 자’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두 속담이 단순한 변이형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별개의 속담이 된다.

62) 말이나 행동을 희뻘게 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배 바닥[배때기] 같다⁶³⁾

이 부류는 ‘희다’가 ‘희뵈다’, ‘흰소리’와 연결되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표준>에는 ‘희다’가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로 풀이되어 있다. [백]의 부정적인 의미가 물리적 색채 의미와 직접 연결되어 경계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 이때의 ‘희다’는 동음이의어가 아닌 다의어이지만 의미가 상당히 멀리 확장되어 유연성이 약해진 상태이다. 따라서 동음이의어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는 어휘이다. 속담에서는 거의 동음이의어에 가깝게 언어유희가 이루어지고 있다. (147)의 두 속담은 외형적으로 매우 유사하나 그 뜻은 다르게 나타나는 예이다. 첫 번째 속담은 ‘희다’가 물리적 색채 [백]으로 간주되어 다시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유추한 결과이고 두 번째 속담은 이미 확장된 부정적인 의미를 직접 도출한 결과이다. 구전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유추 작용으로 현재의 의미가 새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48)에서는 [백]의 원형 대상으로 까치 배 바닥이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까치를 까마귀와 함께 유사 범주에 넣은 속담을 보았는데, [흑]과 [백] 양쪽에 걸쳐 있는 특이한 경우이다.

3.3. [흑/백] 색채어 대립 속담

[흑/백] 계열 색채 표현은 대립 구조를 보이는 일이 많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치적 사고(二值的 思考)에 기인한 것으로, ‘흑백을 가리다’와 같으나 표현에서 볼 수 있듯 [흑/백] 대립은 매우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⁶⁴⁾ 이것은 의미상 양극 대립의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합성어, 관용구, 속담 등 양극 대립 구조를 보이는 표현에서는 그 대

63) 실속 없이 흰소리를 잘하는 것을 비웃는 말(표준)

64) 박옥련(1998: 80)에 의하면, 색의 대비 가운데 명도대비는 명도차가 있는 두 가지 색 중에서 밝은 색은 더욱 밝게, 어두운 색은 더욱 어둡게 느끼는 현상으로서 인간은 명도에 대한 반응이 가장 예민하다고 한다.

립의 극을 구성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정해진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와 같은 관용 표현이 존재하므로 직관적으로는 인체의 양 극단은 ‘머리-발’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로 ‘미주알고주알, 밀두리콧두리’와 같이 ‘밑-코’의 대립이 나타난다.⁶⁵⁾ 이것은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판다는 뜻에서 위아래에 있는 신체의 구멍을 양 극단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항문’이라는 대립은 또 다른 관습적 의미 대립에서 온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속담에서는 [흑/백]의 속성을 가지는 사물이 얼마간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대립을 이루는 사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양상의 의미 관계를 보인다.

다음은 [흑/백] 대립을 보이는 속담들이다. 이 가운데는 [흑/백]의 색채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의 부정어만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분명한 흑백 대립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었다.

- (15) ㄱ.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까/가마솥이 검기로 밥도 검을까/겉이 검기로 속도 검을까/솥은 검어도 밥은 검지 않다⁶⁶⁾/솥이 검다고 밥도 검을가
 ㄴ.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한다⁶⁷⁾
 ㄷ. 검은 데 가면 검어지고 흰 데 가면 희어진다⁶⁸⁾
 ㄹ. 검다 희단 말 없다
 ㅁ. 센둥이가 검둥이고 검둥이가 센둥이다⁶⁹⁾
 ㅂ. 검은 머리 파 뿌리 되도록[될 때까지]

65) ‘미주알고주알’에서 ‘미주알’은 단어로 존재하나 ‘고주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밀두리콧두리’와 비교하여 유추해 보면 ‘고주알’은 ‘고>코’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6) 겉이 훌륭해 보이지 않아도 속은 훌륭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67) 엄연한 사실을 뒤집어엮고 사람들을 속이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68) 주위 환경이 사람의 사상이나 성격에 큰 영향을 줌을 이르는 말.

69) 색이 검은 희든 개는 개라는 뜻으로, 어떻게 바뀌든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 ㄱ. 검은 구름에 백로 지나가기
- ㅇ. 까마귀 학이 되라/까마귀 제아무리 흰 칠을 하여도 백조로 될 수 없다
- ㄷ. 까마귀 무리에 헤오라기 하나⁷⁰⁾
- ㄷ. 까마귀가 검은도 살은 희다[아니 검다]/까마귀가 검기로 마음[살/속]도 검겠나/까마귀 걸 검다고 속조차 검은 줄 아느냐
- ㅋ. 흰 것은 좋지요 검은 것은 글씨라
- ㅌ. 한번 검은면 흰 줄 모른다. 한번 나쁜 버릇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는 말.

(15ㄱ)에서는 ‘가마(술)-밥’ 대립이 보인다. 이것은 [용기: 내용물]의 대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두 어휘소가 모두 각기 [흑/백]의 원형으로서 기능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善/美: 惡/醜]의 대립이 나타난다. 몇 가지의 대립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매우 생산적인 대립이다. 그런가 하면 (15ㄴ-ㄷ)과 같이 색채어 자체가 대립을 이루는 속담도 있다. 이들은 순수한 이치적 사고를 반영한 것들이다. 물론 [공정/부정]의 대립 개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사상(事象)을 양분하여 인식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흑/백]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색들과 달리 [흑/백]은 [이/저], [옳다/그르다] 등과 같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 틀로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15ㄴ)은 개의 색깔로써 개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연을 구성하는 개별 종의 외면적 특징과 그것들이 모여 ‘개’라는 어휘소의 외연이 구성되는 관계 자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의미 구조이다. 모순처럼 보이는 명제이지만 ‘센둥이/검둥이’는 등위 범주의 개체이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로 받아들인다면 모순이 아니다. 여기서도 [흑/백]이 인식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다.

(15ㄷ)의 경우, [백]의 표상하는 보조 관념으로 ‘파 뿌리’가 사용되는 것이 특이한데 이것은 ‘파 뿌리’가 [백]의 원형이라기보다는 본래 형태의 유사성에 근거한 은유 표현이었다가 관용화되면서 죽은 은유가 되어 버린 결과로 보인다. (15ㄷ)은 사전에 세 가지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①정처 없이 떠돌아다님을

70) 북한 속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두드러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어떤 일을 해도 그 자취가 남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많은 것 가운데서 유난히 표시가 뚜렷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이 그것으로, 세 뜻풀이 사이에 유연성이 발견되지 않아 의미 분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속담을 구성하는 어휘소들의 여러 가지 의미 특성이 제각기 작용하여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①은 ‘구름/백로’가 가진 [비행, 방랑]의 의미 특성을 별 다른 색채 대비 없이, ②는 ‘구름’의 [일시성, 無形性]과 ‘백로’의 [이동]의 의미 특성을 색채 대비와 함께 드러낸다. ③은 순수하게 [흑/백] 색채의 시각적 대비를 보여준다. 이때 대립쌍을 이루는 ‘검은 구름’과 ‘백로’는 [배경]과 [주체]로서의 관계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속담에서 각기 다른 의미 특성을 활용하여 서로 독립된 의미가 나타나는 현상은 흔하지 않다. 여러 개의 의미가 있더라도 대개는 의미 간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동음이의어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여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⁷¹⁾ 이 속담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의미를 표상하는 원형이라 생각되는 것이라도 반드시 그 의미만으로 속담에서 기능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50-츠)은 모두 ‘까마귀’가 [흑]의 원형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립하는 [백]의 원형적 대상으로 ‘학, 백조, 해오라기’가 나타난다. [백]은 [흑]과 달리 대표적인 원형이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조류]라는 특성을 공유할 뿐이다. (15ㄱ)은 물리적 색채 대립만 나타나는데, 문자를 해독하려면 문자 기호의 변별적 특징을 알아야 하나 그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장 기초적인 인지, 즉 [지면:기호]의 변별만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5ㄷ)은 색채어가 직접적으로 [긍정:부정] 대립을 드러내는 예이다.

지금까지 [흑/백] 대립이 나타나는 속담을 살펴보고 그 의미 구조를 미흡하게나마 분석해 보았다. 속담에서의 대립쌍은 어휘소의 대립보다는 동질성이 약한 편이지만 모두 의미적 유연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71) ‘손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는 속담에서 ‘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이라는 뜻이지만 ‘손님’이라는 뜻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표준>에서는 동음이의 속담으로 처리했다.

점은, 대립쌍을 이루는 어휘들이 반드시 등가의 어휘쌍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의미 속성을 공유하며 [흑: 백] 대립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흑: 백] 대립 외에도 복합적인 대립이 나타난다. 또한, [흑] 계열과 [백] 계열 속담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흑]의 긍정적인 의미나 [백]의 부정적인 의미 등 [흑/백]의 보편적인 2차 의미에서 벗어난 예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양극화된 두 개념은 원형 의미에 가깝게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4. 결론

본고는 색채어 의미 연구의 일환으로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우선 색채어 가운데 [흑/백] 계열의 색채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말 속담을 색채별로 분류하였다. 실제 의미 분석에 있어서는 속담이 가지는 은유·환유적 특성에 주목하여 색채어 자체뿐 아니라 색채어와 공기하거나 연어 구실을 이루는 어휘소들 간의 의미 관계를 제시하려 하였다.

속담을 크게 (1) [흑] 계열 속담, (2) [백] 계열 속담, (3) [흑/백] 대립 속담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고찰했는데, [흑]과 [백] 계열 속담에서는 각 색채어가 [긍정/부정]의 가치 평가 의미를 가지는 유형, 물리적 색채 의미를 가지는 유형, 공기하는 어휘소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유형 등으로 각기 세분하였다. [흑/백] 대립 속담에서는 주로 [흑]과 [백]을 표상하는 어휘소들의 대립쌍이 서로 어떤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속담에서 나타나는 색채어의 의미는 추상적이고 유동적이며 사회·문화 배경에 의존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속담의 색채 표현은 은유에 의해 전이된 의미가 원래 의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환유에 의한 전이와 같이 두 의미가 공존하고 있음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속담 색채 표현의 의미는 색채어 단독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공기하는 어휘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속담 속 색채어에 대한 연구 성과는 꾸준히 있었으나 대부분 색채어

자체의 독자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기하는 어휘소들의 의미 관계 기술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 점에 주력하여 분석을 해 보았으나 많은 미비점이 남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속담·관용 표현 속 색채어와 그 외의 어휘에 대해 정밀한 의미 분석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 김영철(2003), 「우리말 관용어의 상징 의미 연구-색채어를 대상으로」, <국어문학> 38, 국어문학회, 55-72.
-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인화(1987), 「현대 한국어의 색채어 연구」, 이화여자대학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김종도(2005), 『인지문법적 관점에서 본 환유의 세계』, 경진문화사.
- 김진해(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 한국어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 나지영(2002), 「한국 색채의 상징성과 일상성」, 조형예술연구 6, 상명대학교 조형예술연구소
- 문은배(2002),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 국제.
- 박경선(2001), 「영어와 한국어의 색채어와 신체어에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 담화와 인지 8-1, 담화인지언어학회, 69-83.
- 박명원(2001), 「한국인의 색채 의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혜·권영걸(2005), 「한국 속담에 나타난 서민의 색채 의식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19권 3호, 한국색채학회, 1-11.
- 박옥련(1998), 『색채 이론과 활용』, 형설출판사.
- 손세모듈(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133-165.
- 송현주(2003), 「색채 형용사의 의미 확장 양상」, 언어과학연구 24, 131-148.
- 이기문(1980), 『속담사전』, 민중서관.

- 이혜윤(2005), 「기본 색채 형용사의 의미기술 — NSM 이론의 틀 안에서」, *독어교육* 33,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41-160.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06), 「감정의 색채 반응 양상」, *담화와 인지* 12, 담화인지언어학회, 76-98.
- 임혜원(2005), 「한국어 [빛과 [색]의 은유적 확장」, *담화와 인지* 12호 3권, 담화인지언어학회, 101-119.
- 임혜원(2006), 「국어 사물 개념의 은유적 확장 연구-대화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125-155.
- 조영수(2002),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나타난 색깔의 상징의미 (1)-하양과 검정」, *독일문학* 84, 한국독어독문학회, 513-537.
- 지인영(1999), 「한국 속담과 영어 속담에 나타난 생활문화 비교」, *교양교육논문집* 4, 한국체육대학교, 111-123.
- 채수명(2002), 『색채심리마케팅』, 도서출판 국제.
- Clark, H.H. & Eve V. Clark(1977),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Cruse, D.A.(2000), *Meaning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임지룡 · 김동환 역, 『언어의 의미』, 태학사.)
- Lakoff, George &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노양진 ·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1995.)
- Lyons, John(1995), *Linguistic seman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rick, Neal R.(1981), *Semiotic principles in semantic theory*, Amsterdam; John Benjamins B.V.
- Sweetser, Ev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박정운 외 옮김, 『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박이정.)
- Wierzbicka, Anna(1996), *Semantics, Primes and Univers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07년 3월 31일

게재 결정일: 2007년 5월 21일

ABSTRACT

A Study of Meanings of Color Words in
Korean Proverbs: on [Black/White] Groups

Jang, Kyeong-hyeon

In this research, I tried to analyze the meanings and the structures of color words representing the meaning [black/white]. The meanings of [black/white] words are used as the basic cognitive concepts in that they are used as the idealized psychological poles, and proverbs are the very form that shows the commonsense and the general mental images of the common people. So I focused especially on the semantic relations of the collocated lexical items.

Metaphor and metonymy are important in analyzing the meanings of proverbs. And metonymy is somewhat more needed because the meanings of proverbs have the tendency to be affected by social-cultural context and the meanings of the words are usually extended by metonymy.

Proverb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1) [black] words group 2) [white] words group 3) [black/white] opposite group. In 1) and 2), we can find some subordinate proverb groups. They are the [positive/negative] meanings of [black/white] expressions, the physical meanings of [black/white] expressions, and the meanings of collocation words. Common knowledges of people do some crucial works in constructing and

interpreting the meaning structures of proverbs. So the meanings of color words in proverbs are non-fixed and variable. In some proverbs, 'black' means [evil/ugly/misfortune] but in other proverbs, means [good] or simply forms an oppositional pair. Various factors work for this. In 3), the words for [black/white] are used with somewhat more basic and direct meanings. And there are various semantic relations ba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real things in the real world. And we can find that semantic relevance remains.